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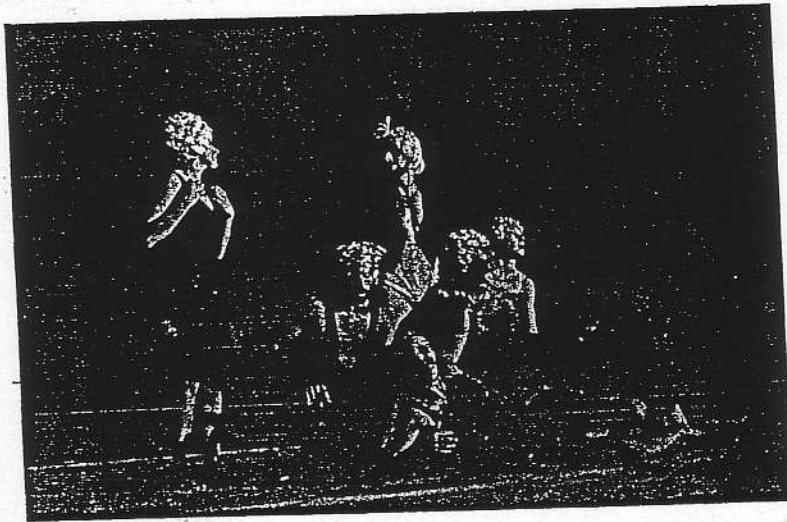
# NOBLIAN

DESIGN YOUR BEST LIFE  
OCTOBER 2009

Culture  
Dance

EDITOR  
BANG HOKWANG

COOPERATION  
SIDANCE (3216-1165)



## Just dance

Get yourself out of your boring daily routine. On stage now is the raw essence of flamenco in "La Puerta Abierta" presented by the Isabel Bayón Compañía Flamenca and "Ibislacchi - Omggio a Fellini" that recalls the multi-colored life of Fellini.

(이상한 사람들 - 페데리코 펠리니를 위하여)는 10월 19일 예술의전당 도림극장에서 열린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그 무로**  
할에 자칫 즈음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일상이지만 춤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리'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09)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이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축제는 일상의 여유와 소소한 즐거움마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아파하여 각 나라 최고의 무용단과 관객이 함께 호흡해 줄거은 춤의 향연을 보여주는 세계인의 축제다.  
그중 회색되지 않은 플라멩코의 진수 스페인 이사벨 바온 플라멩코 무용단이 펼치는 <라 푸에르타 아비에르타-열린 문>과 알록달록한 펠리니의 인생을 회상하는 아르테미스 무용단의 <이상한 사람들-페

데리코 펠리니를 위하여>를 만나보자

**환상적이고 화려한 꿈의 세계를 그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 페데리코 펠리니를 위하여)는 빈박반의 유쾌하게 빛나는 이탈리아적 감성으로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춤과 연극의 절묘한 만남이다. 펠리니는 현대 영화사에서 화려한 족적을 남긴 거장으로 아카데미상을 다섯 번이나 수상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으로 유명하다. 이탈리아적인 것을 가장 이탈리아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그의 대표작 중 <겉 너는 기억한다> <달콤한 인생> <인터뷰> 등 6편의 주옥같은 영화가 아르테미스 무용단의 독

특한 감성과 색채로 무대 위에 오른다. 아르테미스 무용단은 영화 <대부>의 음악으로 잘 알려진 작곡가 니노 로타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펠리니 영화 속 인물과 이미지, 그리고 스틸 장면을 무용과 연극의 절묘한 조합으로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탈리아 특유의 유머와 감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 작품은 펠리니가 동경한 환상적이고 화려한 꿈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아르테미스 무용단은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의 전형적인 순박함과 이상주의적 성향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풍부한 색채감 속에서 활기찬 에너지로 한껏 발산하고 있다. 화려한 서커스 복장, 엄미복, 수염복 등 독특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은 바로 펠리니의 영화에서 빠져나